

Greene의 브라이턴·록크 (*Brighton Rock*)

에 나타난 악 (Evil) 의 문제

고 석 구

‘브라이턴·록크’(*Brighton Rock*), ‘힘과 영광’(*The Power and the Glory*)과 ‘사건의 핵심’(*The Heart of the Matter*)을 일컬어 Greene의 삼부작(三部作)이라고 한다. *Brighton Rock*을 맨처음에 다루어야 마땅한 일이로되 필자가 처음에 이작품에 덤벼들었을 제, 그것은 난해할 뿐더러, 피상망치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으므로 여러번 되풀이 읽고난 다음에야 맨끝으로 다루기에 이르렀다.

화려하기가 이를테 없는 바닷가에 자리잡은 유원지를 뒷전으로하여, Greene은 모질고도 끔찍스러운 살인사건을 엮어나가고 있다. 브라이턴(*Brighton*)은 얼핏보기에는 아무일도 없어 보일뿐더러 천진스러워 보이기만 하지만서도, 밑바닥을 드러다본즉 거죽과는 아주 단판인 헨리·제임즈(*Henry James*)의 세계를 닮고있다. 핑키(*Pinkie*)라고 이름하는 소년이 왓자지껄여대는 사육제(謝肉祭)의 배경속에서 저지르는 듯한 죄악들의 맞부딪힘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걸모양들과 그것들에 가득 차 있는 악의 정신 사이에 감돌고 있는 대조로 해서 더욱더 힘찬 느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Brighton Rock*은 불안이 가득 차 있는 탐정소설을 사뭇 윤택도는 작품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그럴수 밖에 없는것이 Greene은 이러한 일의 형편에다가, 형이상학(形而上學)적인 차원(次元)까지도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Pinkie*의 여러모에서의 못됨은 그의 어릴때를 길러낸 흥약스러움이 겨를나위 없이 뒷거리뿐이 아니라 은총(*grace*)이라고는 아랑곳 않는 채로 어쩔수 없이 타락해 버린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하여 *Pinkie*와 *Brighton*의 가난뱅이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은 저자 Greene의 악의 이념을 보여주는 매개체(媒介體)가 되고 말았다. 자서전스러운 작품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Lost Childhood*이라든가

The Lawless Roads, 그리고 *Journey without Maps*는 모두가 Greene이 악(惡)이라는 문체에 무척 흘러 들어가는 느낌 이라든가, 악의 인식이 바로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맨처음의 발판이라는 St. Augustine의 견해를 Greene이 마침내 받아들이기에 이르는 사실을 소설로써 나타내고 있다. *The Lost Childhood*에서 그는 열네살 때에 Elizabeth Bowen의 *Viper of Milan*이 즐겨읽은 책이었노라고 말하고 있다

Pinkie가 지닌 바 여러모의 못됨은 그의 어릴때를 걸리낸 흉악스러움이 겨를 데 없이 뒷거리뿐이 아니라 은총(grace)이라는 것을 아랑곳 않는 채로 어쩔수 없이 타락해버린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하여 Pinkie와 Brighton의 가난뱅이들이 우글거리는 언저리는 저자 Greene의 악(惡)의 이념을 보여주는 매개체(媒介體)가 되고 말았다.

It was no good in that real world to dream that one would ever be a Sir Henry Curtis, but della Scala who at last turned from an honesty that never paid and betrayed his friends and died dishonoured and a failure even at treachery—it was easier for a child to escape behind his mask. As for Visconti, with his beauty, his patience and his genius for evil, I had watched him pass by many a time in his black Sunday suit smelling of mothballs. His name was Carter. He exercised terror from a distance like a snowcloud over the young fields. Goodness has only once found a perfect incarnation in a human body and never will again, but evil can always find a home there. Human nature is not black and white but balck and grey. I read all that in the *Viper of Milan* and I looked around and I saw that it was so.¹⁾

이와같은 견해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많은 것에 대하여 카톨릭(Catholic)스럽게 힌주어 말하는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지만서도 다음쪽에 이르러서 Greene의 다음과 같은 생각은 그가 서있는 자리를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다.

Miss Bowen had given me the pattern—religion might later explain it to me in other terms, but the pattern was already there—perfect evil walking the world where perfect goodness can never walk again, and only the pendulum ensures that after all in the end justice is done.²⁾

1) Greene, *The Lost Childhood*, p. 16.

2) *Ibid.*, p. 17.

Greene이 그가 어렸을 적에 저승에 못간 혼령처럼 끈덕지게 따라다녀서 괴롭기가 이틀데 없을 뿐더러 불꽃없이 산산히 마사진 육체의 흉악스러운 수한 꿈 짜투리라던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무렵에 그를 외토리로 몰아넣었던 끔찍한 괴로움에 꼼짝없이 흘러버린 일들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그러한것을 그가 의식한것이 그에게 그 수한 환상만을 대어 주었노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음은 또한 뚜렷한 노릇이다. Nottingham에서 보내던 그의 나날을 그가 논평하기를

Riding on trams in winter past the Gothic hotel, the super-cinema, the sooty newspaper office, where one worked at night, passing the single professional prostitute trying to keep the circulation going under the blue and powdered skin, one began slowly, painfully, reluctantly, to populate heaven.³⁾

Africa와 Mexico에서 Greene이 여러모로 겪은 바는 저자로 하여금 선(good)에 이르는 길잡이로서의 악(evil)의 개념을 정성껏 다듬어 낼 뿐더러 그것을 뚜렷하게 바쳐주고 있다. 그는 이것들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찾아내고 있다. 그것들인즉, 물질적인 조건들이 끔찍스러울뿐더러 망녕된 믿음의 견잡을 수 없을만치 설칠망정, 개화된 사람들이 있어 버리고간 신비스러운 뿐 아니라 날카로운 감각을 덮어놓고 믿어 의심치 않는 원시인만이 지니고 있는 믿음같은 것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 말이다. 원시적인 것에 대한 그의 믿음은, Brighton Rock이라던가 The Heart of the Matter 그리고 The Power and the Glory와 같은 작품의 배경에 늦이감치 나타나고 있다. 빈민굴들이라던지 Africa의 조그만 식민지에 자리잡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멕시코(Mexico)의 미개인들이 사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 독자들이라던 문명 세계에 오히려 염증을 느낄 것이요, 자연 그대로의 인간 조건들에 이끌려갈 것이다. 인간들의 마음안에 깊숙이 도사린 악이, 다듬어질 대로 다듬어진 안락하기만한 문화 세계에서는 위장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인생의 불쾌하고(seedy) 또 맞지 않으며 원시적인 자리에서는 걸쭉질만 벗고만 마침내는 참된 본의의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어찌 그뿐이라, 우리가 악 그대로의 모습을 몸소 눈여겨 볼때면 천국 역시 하나의 가능성이 되어버린다. Greene이 Brighton Rock에서 보여주는 단순하고도 힘찬 도덕세계는 바로 明暗敎(기독교, 불교, 조로아스트 따위의 요소를 한데 뭉친 종교로서 3~7

3) Kenneth Allott and Niriam Farris, *The Art of G. Greene*, p. 121.

세기에 한창이었음)의 영적이 아님은 말할나위도 없거니와, 악은 절대적인 실재물(實在物)도 아니요, 오직 궁핍(窮乏)이라고 할런지 바꾸어 말하자면 존재론의 부정(否定)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서도 이와같은 악이 한낱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을 뿐더러 *Gun For Sale*에서 우리는 속죄의 낚시가 없는 타락된 이승에 오직 안팎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Greene이 힘주어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Raven은 천진난만성이 뒤트러짐이라던가 야수성 속에 빠져 죽어버린 소년 시절을 본보기로 들고 있다. 그의 아버지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을 처지이다. 그렇지만서도 *Brighton Rock*에서 Greene은 타락한 젊음이라던가 사나움, 그리고 자기 욕심 밖에는 아무것도 아랑곳 않는 삶은 악의 존재를 꼼꼼스럽게 증명 하여줄 뿐더러 그는 기독교와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여 준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 내용인즉, 인간악의 어떤 형태든지간에 거룩한 사랑이라던가 속죄의 가능성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말하여, *Brighton Rock*의 주제는 두갈래의 현실, 바꾸어 말하면 두가지의 나란히 나갈 수 없는 세계 사이의 대조이다. R.W.B. Lewis가 올바르게 밝히고 있듯이 이것은 저자의 새로운 이념이다.

It is the relation Greene has formulated for himself in *liberia*, between the sinless empty graceless chromirm world of modern urban civilization and the supernaturally infested jungle wothits purer terrors and its leener pleasure.⁴⁾

Ida Arnold는 선악의 문제라던가 속세의 질서에 매달리어 살고 있는 혼란 위인이다. 그녀는 얼굴에 분칠을 하는 여인의 세계에서 한치도 떠나지 못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가치 관념에 매달려서 생을 영위하는 혼해 빠진 여인이다. Pinkie와 Rose는 선악의 신학적인 세계, 말을 바꾸면 그들이 판단되는 절대적인 표준들을 틀림없이 알고 있는 세속적이 아닌 세계에 살고 있다.

Ida가 살고 있는 상스러운 세상의 질서는 기회가 있는 쪽쪽 휘황 빛나는 말을 가질 뿐더러 상습적인 기쁘기만한 정그림을 지니고 있다. 삶은 고작해서 끊임없이 감각을 기쁘게 하는 일뿐이다. 술마시기라던가 춤추기, 초코렛과 성육, 이와같은 것들은 Ida의 애기거리를 뒤엎는 말

4) Lewis, R.W. B., "The Trilogy of Graham Greene", in *Modern Fiction Studies*, III(Autumn 1959), 200.

들어다. 그녀는 「울법」과 육체에 바치는 기회의 소산물이다.

“You wouldn’t mind a bit of fun here?” Mr. Corkery said. He blinked. You couldn’t tell from his expression whether he desired or dreaded her assent. “Why should I? It doesn’t do anyone any harm that I know of. It’s human nature.” She bit at her eclair and repeated the familiar password. “It’s only fun after all.” Fun to be on the right side, fun to be human.⁵⁾

그녀는 선과 악을 이제는 의식하지 않는 T.S.Eliot의 신을 잃어버린 여인들의 전통에 매달려있다. 인간행동의 갖가지 의미에 대한 모든 의식을 잃어버렸을뿐 아니라 성적인 윤리를 번덕스러움에 내맡겨 버린 여인에 관해서, “The Waste Land”에서 비꼬는 논평에 있어서 그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She turns and looks a moment in the glass,
Hardly aware of her departed lover;
Her brain allows one half-formed thought to pass:
“Well now that’s done: and I’m glad it’s over.”

When lovely woman stoops to folly and
Paces about her room again, alone,
She smooths her hair with automatic hand,
And puts a record on the gramophone.⁶⁾

Ida는 사랑의 열매를 도무지 느끼지 않는다. 온통 호들갑떠는 가벼운 친분만을 느낄 뿐이다. 그녀는 Rose에게 말하기를,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통틀어서 어느정도의 경험이요, Pinkie는 그녀에게 그이상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생은 한낱 성적인 「장난」에 대한 한트막의 지식을 주는 것밖에 안된다. 그 장난치기를 잘 배워두면, 우리는 모두가 인생의 밝은 면을 볼 수 있으리라. 어찌 그뿐이랴, 우리는 인생을 더할나위 없이 즐길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밖에 없으리니까 말이다.

Death shocked her, life was so important. She wasn’t religious. She didn’t believe in heaven or hell, only in ghosts, Ouija boards, tables that rapped,

5) Greene, Graham, *Brighton Rock*, p. 210.

6) Eliot, T.S., “The Sermon” in *The Waste Land. II.* 249-447.

and little inept voices speaking plaintively of flowers. Let Papists treat death with flippancy: life wasn't so important perhaps to them as what came after, but to her death was the end of everything.⁷⁾

그녀는 Pinkie가 좇는 여인이 된다. 그 까닭인즉 누군가가 Fred를 불행히 만들었고, 어떤 사람인가가 불행히 되어가고 있으니까 말이다.

An eye for an eye. If you believe in God, you might leave vengeance to Him, but you couldn't trust the One, the universal spirit. Vengeance was Ida's, just as much as reward was Ida's, the soft, fluey mouth affixed in taxis, the warm handclasp in cinemas, the only reward there was. And vengeance and reward-they were both fun.⁸⁾

알파한 무감각이라던가 정신적인 공백 상태가, 얼핏 보기에 Ida의 착한 마음씨라던가 그녀의 공정에 대한 집념으로 말미암아서 가리워지고 있다. 사람은 삶이라던가 그것의 즐거움에 대하여 끈질기게 매달리는 법이려니와 그것이 지닌바 낱아빠진 양심이 「율법」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서 누그러진다. Ida에 대하여 Rose와 Pinkie는 보잘것없이 미약한 존재이다. 그들을 위해서는 현실이 월등히 뛰어난 진리를 뜻하는 위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럴뿐더러 원칙이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을 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Rose와 Pinkie는 소설의 비유적인 뜻에서는 Ida에 맞서고 있지만서도 그들은 똑같은 돈잡은 반대쪽들이다. Rose가 선량하고 자신은 어처구니없이 고약스러운 위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녀는 그들의 사이를 올바르게 말하고 있다.

Ida was as far from either of them as she was from Hell—or Heaven. Good and evil lived in the same country, spoke the same language, came together like old friends, feeling, the same completion, touching hands beside the iron bedstead.⁹⁾

Green이 알기로는 사람의 육체 안에 언제나 고향을 찾아낼 수 있는 악이라는 것이 Pinkie의 몸안에 도사리고 있다. 선이 그러한 모습을 나타

7) *Brighton Rock*, p. 46.

8) *Ibid.*, p. 48.

9) *Ibid.*, p. 120.

낸 적이 오직 한번밖에 없었지만서도 말이다. Pinkie는 사회로 말미암아서 배반당하고, 폭력과 무참한 처사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도 빨리 몸에 익힌 어린이를 또한 나타낸다. *The Lost Childhood*에서 Greene은 이 이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 위하여 그가 좋아하는 시들 중의 하나를 빌리고 있다.

In ancient shadows and twilights
Where childhood had strayed,
The world's great sorrows were born
And its heroes were made.
In the lost boyhood of Judas
Christ was betrayed.¹⁰⁾

Nelson place의 끔찍스러운 빈민굴들은 Pinkie가 어렸을 때의 듯한 고통을 도와주고 있다. 그의 마음은 가난이라던가 인륜에 어긋남, 타락의 흔적과 Nelson place가 진작 나누어준 바 있었던 잊지 못할 가르침을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지옥이란 참으로 진실한 것이다.

He wasn't made for peace, he couldn't believe in it. Heaven was a word: Hell was something he could trust. A brain capable only of what it could conceive, and it couldn't conceive what it had never experienced; his cells were formed of the cement school playground, the dead fire and the dying man in the St. Pancras waiting room, his bed at Billy's and his parents' bed.¹¹⁾

Pinkie는 사회의 덫으로 말미암아서 꼼짝없이 몰리고 말았지만, 사회학적인 힘들의 소산이라고 보아 넘기기에는 절대로 되지 않을 위인이다. Rose는 또한 빈민굴이 길러낸 아이 이니까 말이다. 이러한 환경이라던가 그것의 갖가지 고생스러운 사연들이 있지만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채로 항상 몸에 달고 다녔다. 악에서 강제되는 것은 그것이 환경적인 것과 아울러 또 같이 정신적인 것이라고, Greene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타락된 사람의 불순한 본성은 그의 언저리에 맴도는 소름이 끼치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단순히 지시를 받게 된다.

Herbert Haber는 *Brighton Rock*의 짜임새를 가지고 훌륭하게 분석

10) *The Lost Childhood*, p. 71. 이 시는 "Germinal" by A.E.

11) *Brighton Rock*, p. 331.

하는 글을 썼는데, 이 글 안의 Pinkie의 성격이라던가 그와 교회와의 사이는 더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의 일곱(7) 부분은 일곱 개의 성사(聖事)를 거꾸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대충 여길 수 있다고 그는 넌지시 말하고 있다. 삼부(Part III)에서 그의 사실상의 세례(baptism)가 그에 달라 붙은 원죄(原罪)를 깨끗이 씻어주지 않을 뿐더러, 그 세례는 정신적인 순결을 위한 차비를 또한 시켜주지를 않는다.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그의 어버이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고립시켜 놓고만 첫 범죄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다 뒤틀어졌을 뿐 아니라 강제적인 청교도 기질을 길러내고 Rose와의 그의 관계를 그르치게 된다. 다섯번째의 부(Part Five)는 목사가 되는것을 익살스럽게 개작하고 있다. 갖가지의 세속적인 쾌락들을 전통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뒤집어 엮고서는 첫번째의 술마시기를 하고 그가 살해하였던 친구의 애인을 묘시려고 꾀함으로써 그의 청교 기질을 제물로 바치고 만다. 이 작품의 남은 두 개의 부분은, 의식을 속화는 것이라던가 결혼을 완성하는 것을 이룩한다. Pinkie와 Pinkie는 거룩한 결혼이 아니라 무거운 죄속에서 결합이 된다. Rose는 그가 Pinkie의 얼굴 속에 던지려고 꾀하였던 황산염을 가지고 마지막의 도유식(塗油式)을 받게 된다. 그는 깊은 뉘우침을 모르는 채로 마침내 Rose를 자살과 그녀 자신의 파멸 속으로 몰아넣는 무시무시한 행동에 빠지고 만다.

이 소설이 의도하는 바 독자들을 납득할 만한 해석이 본질적으로 말하여 모순이 없으며, Rose를 뒤바뀐 일종의 사제(司祭)로 엮음으로써 그 해석을 버릴 수 있다. 그는 자기가 어렸을 적에 사제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말하고 「사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그들은 사실을 알고 있어」 하고 자신을 두둔하는 조로 묻는다. 그의 목소리는 「못된 성가대 소년」의 소리이다. 게다가 그의 특성은 타락한 성자(聖者)의 바로 그것이다. 착함을 위한 더할나위 없이 크나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이 간악함을 해내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Greene의 신념이다. 은총을 빼앗긴 Pinkie는 성체(聖體)를 더럽히는 데에 그가 지니고 있는 온갖 정력을 바침으로써, 그의 흉악스러운 몸집을 불게한다. 할때는 천사들의 영익에서 비길 데 없이 귀가 컸지만서도 그의 오만때문에 쫓겨 나고만 마귀(Satan)와 같이, Pinkie는 그의 거룩한 잠재력을 망가뜨릴 뿐더러 그의 거만스럽고 싸움조의 모독 행위들 안에서 기쁨을 받아드린다. 그가, Rose와 결혼을 하여 무거운 죄(mortal sin)라고 자신을

「천사들이 슬퍼하는 성숙한 사나이」라고 여긴다.

Pinkie의 갱뿔 뿔 두 눈은, 「감정이 죽어버린 늙은이의 그것들처럼 매몰스러운 인상을 띠고 있을 뿐더러 파멸적인 영원에서 와서 다시금 그것에 되돌아가는 듯 싶은 기미를 띠고 있다」 그의 이러한 눈들은 앞날을 이미 꿰뚫고 있거나 하는 듯이, 소설의 처음부터 Pinkie의 영겁(永劫)의 벌을 짊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소년은 타락이라던가 굳어지기만 하는 죄의 어쩔 수 없는 절차를 치르고 있다. 그의 오만은 그의 눈을 어렵게 하여서 그의 으쓱거리는 야심과 그가 이룩한 바 사이의 틈바구니가 짐차로 넓어져만 간다. 그는 Ida의 염려를 알보고 그의 죄에 대하여 Rose가 아는 바의 위협스러움을 너무나도 크게 본다. 무서우리만치 나이가 들어 가고 있는 사나이들과 하나의 바보라는 현실로 이루어진 그의 패거리가 Colleoni의 힘찬 기업조합(Syndicate)을 겨룰만한 존재라고 Pinkie는 마음속에 은근히 생각하여 본다. 그는 더욱더 죄를 저지르는데 그 목적 인즉 첫번째의 죄악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그가 가진 오만은 그의 쉬어가는 까닭을 먹고사는 기생충(寄生蟲)마냥 생명을 이어 나가고 있다. Rose을 통해서 그에게 속죄의 복된 운수가 주어질 때, 그는 그녀가 바친 사랑이라던가 몸을 바친 행동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가 다음 사실을 깨닫기에 이른다. 그 사실인즉 그녀는 사나이를 본질적으로 완성할 뿐더러, 그들의 사이는 선과 악의 맺음이지만서도 사나이는 선의 껍질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일 말이다. 그는, 자신과 Rose를 두사람 모두가 알고 있듯이 큰죄를 뜻하는 자리에 자리잡게 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폭력에 대한 그의 눈어둠이라던가 자기밖에 모르는 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참기 어려움이 사람들로 하여금 은총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가로막는다. 그가 Rose를 꺾어서 스스로를 죽이게 할 때에, 그의 목숨의 마지막 시간들 동안에 그를 꺾어버릴 듯한 부드러운 마음씨를 그는 목숨을 걸고 받아 들이려고 들지 않는다.

He found that he remembered it all without repulsion; he had a sense that somewhere, like a beggar outside a shuttered house, tenderness stirred, but he was bound in a habit of hate. He turned his back and went on up the stairs.¹²⁾

12) Haber, Heber, "Two Worlds of Graham Greene", in *Modern Fiction Studies*, III(Autumn 1957), 260-64.

Rose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도록 꾀를 한 곳으로 Pinkie가 바닷가에 차를 몰고 나가다 보니, 그는 다시금 착함의 꼬임을 받게 된다. 「우리들이 저지른 바」에 대하여 Pinkie가 미워하는가 여부를 그녀가 물을 때에 그는 「그렇지 않다」고 대꾸한다. 그것이 무거운 죄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지 만서도 말이다.

It was quite true—he hadn't hated her; he hadn't even hated the act. There had been a kind of pleasure, a kind of pride, a kind of—something else. The car lurched back onto the main road; he turned the nose to Beighton. An enormous emotion beat on him; it was like something trying to get in, the pressure of gigantic wings against the glass. *Donanobis pacem.* He with—stood it, with all the bitter force of the school bench, the cement playground, the St. Pancras waiting room, Dallow's and Judy's secret lust, and the cold unhappy moment on the pier. If the glass broke, if the beast—whatever it was—got in, God knows what it would do. He had a sense of huge havoc—the confession, the penance, and the sacrament—an awful distraction, and he drove blind into the rain.¹³⁾

Pinkie가 잠깐 동안이나마 하나님의 평화로 말미암아서 꼬임을 받았을 지라도 그가 찾아 마지 않는 오직 하나의 참다운 평화인즉 그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Pinkie가 몰아 내었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깨닫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는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만 사람들의 느낌이 그에게 맞지 않는 듯한 것이나 똑같이 말이다. 이 무지(無知) 밑에는 몹시 놀라서 혼백이 흩어질 만치 본질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요소가 스며들고 있다. 성적인 관계가 그에게 오히려 더럽기만 한데 그 까닭인즉 그가 어렸을때 갖가지의 불미스러운 추억들 때문이 아니라 육체 관계란 하나의 인간이 다른 인간과 은밀하여지고 하나의 개인이 만 개인 속으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음악은 그의 마음 안에 어렴풋이 슬픔을 담은 전서를 불러 이르킨다. 그뿐더러 아픔을 지우는 소망은 그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열을 가까이 하는 오직 하나의 느낌이다.

The imagination hadn't awakened. That was his strength. He couldn't see through other people's eyes, or feel with their nerves. Only the music made him uneasy, the catgut vibrating in his heart.... That music; it moaned in his head, it was the nearest he know to sorrow, just as a faint secret sensual pleasure he felt, touching the bottle of vitriol with his fingers as Rose

13) Brington Rock, p. 336.

came hurrying by the concert hall, was his nearest approach to passion.¹⁴⁾

Pinkie의 타락하여 버린 본성(本性)이라던가 그의 얼룩진 시절이 힘을 모아서 Rose가 보여주고 있는 선(善)에 이르는 끈임을 쳐부순다.

“He trailed the clouds of his own glory after him: hell lay about him in his infancy. He was ready for more deaths.”¹⁵⁾

그가 Rose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가능성을 가지고 말할 지라도, 그는 폭력의 버릇이 너무나도 굳어 버린 지라서 죽기에 앞서서 죄를 뉘우칠 마지막 기회를 받아드리지 못한다.

He closed his eyes under the bright empty arch, and a memory floated up imperfectly into speech. You know wjat tjeu sau—Between the stirrup and the ground, he something sought and something found. “Mercy.” “That’s right: Mercy.” “It would be awful though,” she said softly, “if they didn’t give you time.”¹⁶⁾

Rose의 두려움은 뚜렷하여진다. 왜냐하면 Pinkie가 숨을 거둘 때에 종교적인 미움의 정신에 젖은 채로 그에게 나누어지고 있는 사랑의 비렁뱅이가 되기를 물리치고 말 것이다. 그가 Rose를 통해서 피한 뼈를 깎는듯한 비평은 Pinkie 자신의 눈 속으로 들어가서 낭떠러지 위로 굴러 떨어지고 만다.

He was at the edge, he was over; they couldn’t even hear a splash. It was as if he’d been withdrawn suddenly by a hand out of any existence—past or present, whipped away into zero-nothing.¹⁷⁾

그렇지만서도 *Brighton Rock*은 Pinkie의 괴멸(annihilation)과 더불어 끝장이 나지 않으려니와 이 작품에 있어서 그는 더할나위 없이 뜻깊은 주인공도 아니다. Rose의 마음속에 깃들고 있는 놀라운 사랑은 Pinkie의 미움보다 한결 크나큰 수수께끼를 마련해 준다. 비평가들은 Rose라는 사람됨을 캐물을 값어치가 있노라고 여기지 않으며 그녀를 비김(Alle-

14) Ibid., pp. 62-63.

15) Ibid., p. 300.

16) Ibid., p. 128.

17) Ibid., p. 352.

gory)에 있어서 선의 상징(symbol)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것을 찾아내지도 않으려니와 Pinkie의 본성을 밝히기에 쓸모 있는 대립하는 위인으로도 보지도 않는다. 이러한 견해는 Pinkie의 심술궂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만서도, 이 작품의 뜻있는 해석으로 이끌어지지는 안될 말이다. 우리는 핏기가 없고 거무튀튀한 여검이라던가 Pinkie를 위한 그녀의 사랑에 대한 Green의 세세한 묘사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왜냐면 Greene의 소설들에 대하여 *Brighton Rock*이 지니고 있는 철학적으로 관련된 면에 있어서 뿐이 아니라 이 작가의 종교적인 신념의 반성으로서 이 작품을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이 작품을 송두리채 휘둘러 보아서, Greene은 끊임없이 겉보기와 사실을 대조시키고 있지만서도 그는 이 작가는 Rose를 그리는 마당에 있어서 더할나위 없이 똑똑히 이 갈라놓기를 힘주어 말하고 있다. Pinkie는 그녀를 파리하고 깡마른 아가씨로 여긴다. 「그들 자신의 발자욱 소리를 접내거나 하는 듯이」 살금살금 발자욱 소리를 접내는 수많은 아가씨들과 같이 말이다. Pinkie는 그녀의 젊음이라던가 값없음이라던가 무식, 그리고 세상 경험의 모자람을 무서워한다. 그렇지만 그는 다음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사실인즉 그녀의 담참이 용감무쌍 하여진 동물들의 그것을 빠져 먹는지라 그녀는 그의 죄악을 알고 있을지라도 사나이에게 시종 절개를 굽히지 않으리라는 것 말이다. 지금까지 그녀 자신의 삶에 설혹 사랑이 없을지라도 그녀는 사나이에게 엄청나리만치 헌신적으로 굴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들의 「변덕」에 지나치게 빠진 지라 딸을 돌보지 못하게 되어서, 그녀의 놀이 친구들이 각박스러운 생본겨름 성서적으로 메마르게 되었다. 그녀의 열여섯해들은 Nelson place이라는 곳이 마련해 주는 지식으로 빈틈없이 차 있는지라 그녀의 소신은 Pinkie의 그것과 다름없이 그녀 자신의 욕망에 따르지 않고서 영원성이 있는 가치로 말미암아서 결정된다. 그녀는, 그녀를 「구제」할려는 Ida의 갖가지의 꾀를 막아낼 수 있으며, 「경험」에 대한 조잘거리는 말들에 대하여 화를 터뜨린다.

The Nelson Place eyes stared back at Ida without understanding; driven into her hole the small animal peered out at the bright and breezy world; in the hole were murder, copulation, extreme poverty, fidelity, and the love and fear of God; but the small animal had not the knowledge to deny that

only in the glare and open world outside was something people called experience.¹⁸⁾

Rose와 Ida에 있어서의 겉보기와 사실의 대조의 절정(絶頂)은 Rose가 아이를 갖게되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두툼한 입술이라던가 편안하고 한가로울 뿐더러 관능적인 마음가짐에다 헤아릴 수 없이 잠자리를 같이 한 사나이들과 더불어 젖통이 큼직한 Ida는 아이를 갖지 못하였는데 Pinkie와의 하루밤의 동품을 하였을 뿐인데 Rose는 아이를 갖게된다. Ida는 정신적인 아이를 갖지못함은 그녀의 육체적인 불임(不妊)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Rose의 사랑이 생산적(生産的)임을 보여 주는 것이나 조금치도 다를 바가 없다.

Rose가 Pinkie에 대한 한결같이 몸을 받치는 마음가짐은 사나이의 성격에 대한 갖가지의 망념스러운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거나 그가 저 지른 죄악들을 모르고 있는것은 아니다. 그녀는 사나이를 사랑한다. 그녀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 자신의 넋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정녕코 알고 있지만서도 말이다. Rose에게 Péguy에 대한 말을 하는이는 다름아닌 사제이다. 그 사제로 말하자면 그의 일생동안을 죄 속에서 헤어 나지 못한 채로 살았다. 그 까닭인즉 하나의 인간이 영겁(永劫)의 벌을 받아서 영영 구제를 받지 못하면 그는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그 사제는 Rose라는 위인 안에는 희생을 위한 이와같은 도량을 인정한다. 만사함을 위한 자기의 일은 줄 사람의 이념이 Green의 마음을 홀리며, 그러한 이념이 그의 수많은 나중 소설들 속에 자주나 타난다. Rose는 Péguy의 모습을 닮은 위인을 만들어 내려는 첫번째 시도인 바 이 인물은 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바지할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녀는 영겁의 벌을 각오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ose는 마침내의 희생을 할 수 있다. 그녀는 Pinkie를 위하여 자신을 죽일 수 없는 것이다. 그녀는 절망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영원히 사나이와 같이 있고 싶어하며 사나이가 자신을 없앨 생각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파멸이 있는 채로 사나이만이 파멸하는 생각을 견디어 낼 수 없다. 사나이가 죽은 뒤에 그녀는 자신을 꾸짖을 수 없다. Greene은 그때에 이렇게 그녀의 여러가지로 생각하는 바를 그린다.

18) Ibid., p. 175.

She would have the courage to kill herself if she hadn't been afraid that somewhere in that obscure countryside of death they might miss each other—mercy operating somehow for one and not for the other.¹⁹⁾

그렇지만 Rose는 은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녀는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넋을 선듯 내던지려고 들지 않는다. 그렇지만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던가 자비스러움에 대하여 그녀의 믿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녀는 모든 것들 중에서 더할나위 없이 고약스럽기가 짝이 없는 환멸과 맞서 볼 생각으로 사제앞을 물러 나간다. 이것은 사제가 원반(disk)위에 적어놓은 그녀에 대한 Pinkie의 미움의 증거인데 그녀가 Pinkie의 아이, 그녀를 위로하여 줄 Pinkie의 아이를 그녀가 배고 있는 오직 하나의 확신과 더불어 말이다.

이렇게하여 하나의 연약한 여인의 모양으로, Greene은 폭력과 미움, 그리고 악(惡)이 들끓고 있는 세상안에 사랑을 끌어 들이고 있다. 이 작가는 인간의 개화되고 습성적인 오만가지 위장 안에 갈기갈기 찢기어진 세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는 악의 가능성을 거절하는 인간은 또한 선(善)을 물리칠 수 없을 것이며, Ida의 선과 악의 영익 안에 있어서 무기력한 속된 윤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서도 그는 초자연적인 힘들 만이 타락하여 버린 세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독자들에게 남겨주지는 않고 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서 기독교의 중심적인 주제(主題), 말을 바꾸면 갈래갈래 찢기운 세상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랑이라는 오싹 소름끼치는 신비를 은근히 말하여 주고 있는상 싶다.

Bibliography

I. Graham Greene's Works

Brighton Rock, London: Heinemann, 1938.

The Lost Childhood, London: Heinemann, 1951.

II. Criticisms on Graham Greene

Allot, Kenneth, and Miriam Farris, *The Art of Graham Greene*, London: Hamish Hamilton, 1951.

19) Ibid., p. 175.

Haber, Herbert, "The Two Words of Graham Greene", in *Modern Fiction Studies*, III (Autumn 1957) 256-68.

Lewis, R.W.B., "The Fiction of Graham Greene: Between the Horror and the Glory" in *Kenyon Review* XIX (Winter 1957), 56-75.

Eliot, T.S., "The Fire Sermon," in *The Waste Land*, 249-447.

